

인터뷰

정리
박연숙 본지기자

100% 완성이 없는 쌀 수집의 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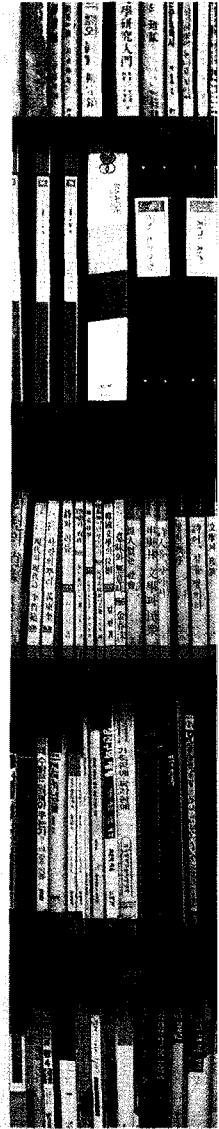
쌀 수집가 권성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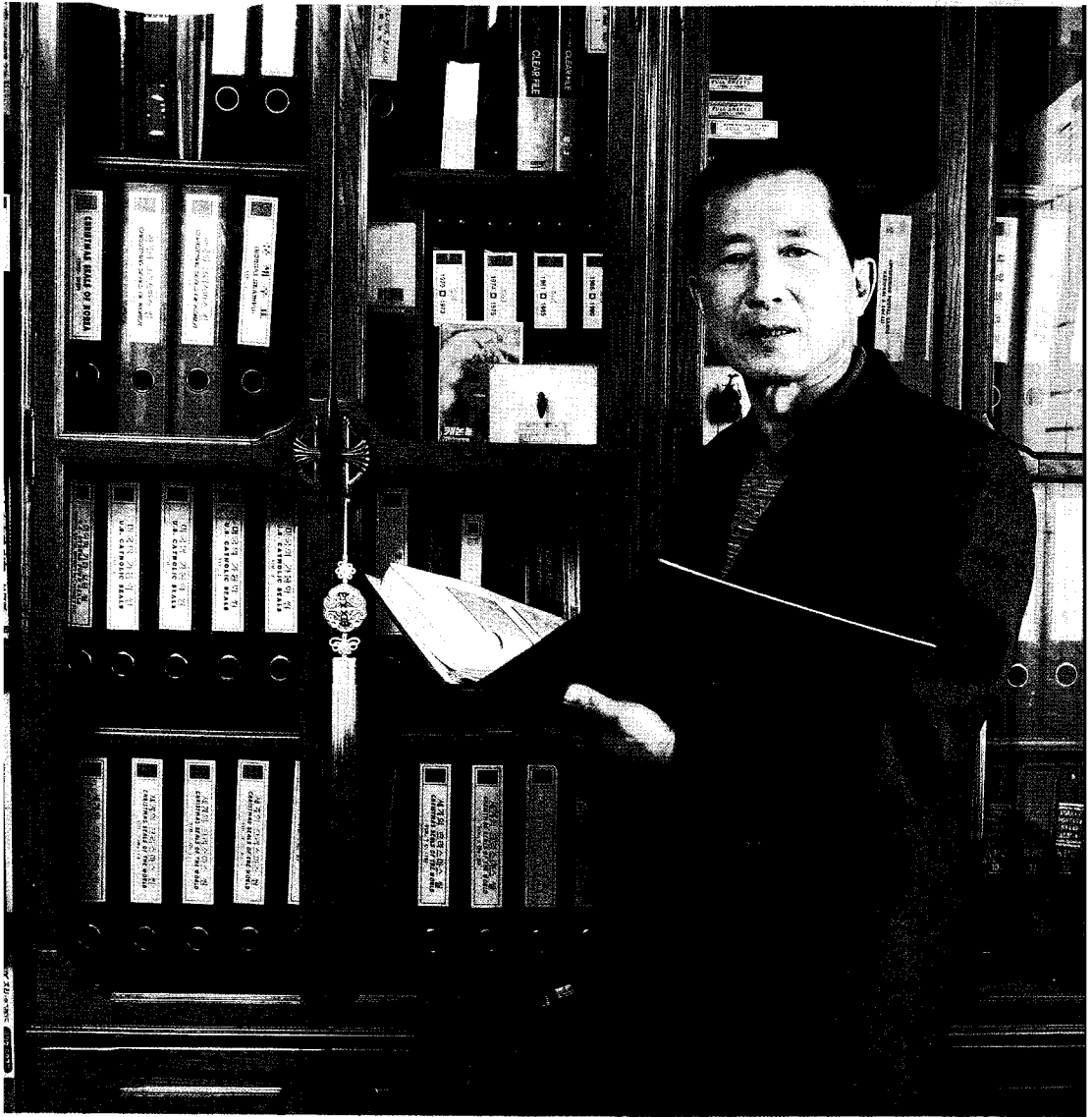
국가 결핵퇴치사업의 밑거름이 되는 크리스마스 쌀 모금활동은 1953년 협회 창립 이래 6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대표적인 나눔운동이다. 매년 쌀 소재가 결정되고 10월 1일 발행되어 전국에서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쌀 발행에 관한 세세한 내용에 눈과 귀를 열고 있는 분들이 있다. 바로 크리스마스 쌀 수집가. 다양한 수집의 영역이 있지만, 일년에 한 번 발행되는 쌀에 관심을 넘어 민간 쌀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수집가분들께 보건세계 지면을 통해 감사드리며, 이번호에서는 열혈 수집가 권성중님을 인터뷰해, 쌀 수집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한다.


쌀 수집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크리스마스 쌀과의 첫 만남은 지난 60년대 초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이루어졌습니다. 씨락눈이 내리던 초겨울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서 나누어주신 우표 같은 예쁜 쌀을 신기해하며 책갈피에 소중히 넣어 두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선생님은 그때 우표처럼 생긴 이 쌀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해 주셨지만 한 귀로 흘리고 다음날 쌀 대금으로 당시 10환짜리 동전 얼마를 낸 것 같습니다. 그 때 시골집 모퉁이 건넌방에는 결핵으로 기침을 하시던 넷째 삼촌이 기거를 하셨는데 조카인 저

KNTA November | December







이 귀여워 해주셨으므로 자주 삼촌 방에 놀러 가서 장난도 치며 결핵치
제인 마스를 영양제로 알고 주워 먹기도 했었지요. 아버지께서는 이런 저를
삼촌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꾸중을 하셨는데, 그 야속한 뜻을 결국은 몇 년
후 합병증으로 삼촌이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된 결핵과 짝이었지만 도시의 중학교로 진학을 한 후에는 별
관심이 없었으며, 당시 유행병처럼 번진 우표수집에 열을 올리다가 정성스레
모았던 짝을 친구의 우표 몇 장과 교환을 해버린 후 짝의 존재에 대해서는 까맣
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후 우표수집도 한 때의 군복무와 바쁜 직장생활에 시들
하기도 했는데, 지난 1988년쯤인가 '한국우표도감' 부록에 처음 수록된 크리스
마스 짝 목록과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름다운 짝과 역사가 있
었음을 알게 되어 벅찬 마음으로 짝 수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감을 통해 크리스마스 짝 발행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최초의 짝인 1932년
남대문 도안의 짝부터 1940년 대문 앞의 두 어린이를 도안한 '해주구세요양원'
발행 짝들은 주로 우리의 민속놀이를 소재로 하고 있어 더 정감이 있었으며, 대
한결핵협회의 최초 짝 도안이 '색동저고리를 입은 소녀'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
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최초의 크리스마스 짝을 보급한 장본인이며
일생을 이국땅에서 결핵병 박멸을 위해 헌신했던 '셔우드 홀' 박사 부부의 숭고
하고 감동어린 생애를 그의 자서전인 '닥터 홀의 조선회상'을 통하여 알았을 때
는 정말 숙연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짝 수집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근래 매년 10월 1일이면 우체국에서도 새로운 올해의 짝을 판매합니다. 짝 수집
가로서는 손꼽아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걸음에 달려가 짝을 마주하고
보면 1년 만에 태어나는 아이와 같이 귀엽고 예쁜 짝의 모습에 가슴 벅찬 설렘
과 기쁨을 함께 합니다. 크리스마스 짝은 이렇게 당시의 상황이나 민속 등 다양

한 소재로 1년에 단 한번 발행하는 소중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싹을 사고 수집을 함으로써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즉, 작은 정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 이상의 일석이조 보람이 따르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싹 수집이야말로 수집분야 중에 으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소장하고 있는 싹은 어떤 것이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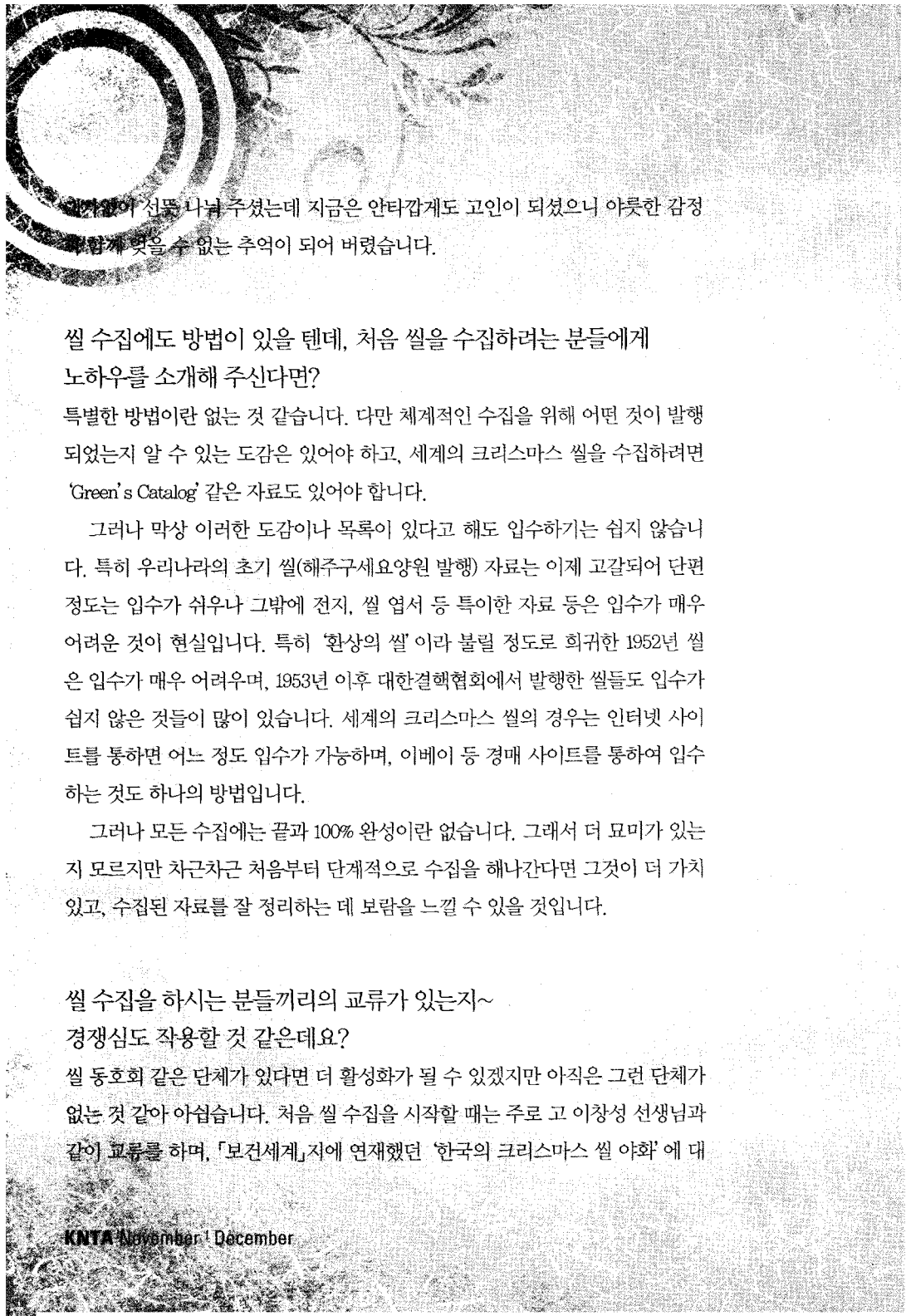
지난 20여 년간 우표보다는 크리스마스 싹 수집에 더 열정을 쏟았을 정도로 크리스마스 싹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더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수집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편 한 장씩을 수집했지만 이후론 전지, 싹 엽서, 실체봉피, 기타 싹과 관련된 자료 등도 모두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싹만을 수집하다가 이윽고 수집분야를 넓혀 지금은 110여 개국에 이르는 세계의 크리스마스 싹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해구구세요양원 발행 1940년의 미발행 싹과 대한결핵협회에서 유일하게 제작한 1965년의 싹첩 2종 및 1973년의 싹 엽서 등은 매우 소중히 간직하며 특히 애정을 갖는 자료들입니다.

가족들이 싹 수집을 반대하진 않는지... 관련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는 여러 가지 수집을 하는 취미생활을 하다 보니 특별히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싹 수집에 대하여도 모두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 고유의 영역을 지켜가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진취적인 취미생활이라면 저 역시 상대방의 취미생활을 장려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무리 순수한 취미생활이라 할 지라도 수집엔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므로 제약을 받는 것이 안타깝지요.

제가 싹 수집을 시작할 때 이름 있는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 중 고 김성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수집품도 보고 자료 입수도 할 겸 어느 날 불현듯이 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아주 반가워하시며 귀한 싹 엽서들을 아무런



이것이 선물 나눠 주셨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으니 아련한 감정을 함께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썰 수집에도 방법이 있을 텐데, 처음 썰을 수집하려는 분들에게 노하우를 소개해 주신다면?

특별한 방법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체계적인 수집을 위해 어떤 것이 발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도감은 있어야 하고, 세계의 크리스마스 썰을 수집하려면 'Green's Catalog' 같은 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도감이나 목록이 있다고 해도 입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초기 썰(해주구세요양원 발행) 자료는 이제 고갈되어 단편 정도는 입수가 쉬우나 그밖에 전지, 썰 엽서 등 특이한 자료 등은 입수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환상의 썰'이라 불릴 정도로 희귀한 1952년 썰은 입수가 매우 어려우며, 1953년 이후 대한결핵협회에서 발행한 썰들도 입수가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크리스마스 썰의 경우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면 어느 정도 입수가 가능하며, 이베이 등 경매 사이트를 통하여 입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수집에는 끝과 100% 완성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차근차근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수집을 해나간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고, 수집된 자료를 잘 정리하는 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썰 수집을 하시는 분들끼리의 교류가 있는지~
경쟁심도 작용할 것 같은데요?

썰 동호회 같은 단체가 있다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체가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처음 썰 수집을 시작할 때는 주로 고 이창성 선생님과 같이 교류를 하며, 「보건세계」지에 연재했던 '한국의 크리스마스 썰 야화'에 대

하여도 집필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많은 크리스마스 썰 수집 단체가 있어 교류와 연구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이 부럽기만 합니다.

물론 사람이란 끝없는 욕망과 경쟁심도 있어 나에게 없는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다거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입수코자 하는 열망에 부풀어 애를 태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집도 어느 정도 절제된 수집을 할 때 건전한 취미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외곶으로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가면 자칫 화를 부르기도 하지요.

대한결핵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썰 수집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근래 매스컴을 보면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썰 판매를 통한 성금모금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한결핵협회에서는 깊은 자성이 있어야겠고, 성금모금 방법도 개선을 하여 좀 더 국민의 가슴 속 깊이 다가가 이해시킴으로써 성공적인 모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국민들도 썰을 꼭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보다는 순수하게 불우 이웃을 돕는 성금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애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썰들은 그동안 몇몇 열성적인 수집가들이 어느 정도 정리도 하고 연구도 하여 많이 체계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썰 수집 인구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예전에는 썰을 편지봉투에 붙여 보내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따라서 고귀한 뜻이 담긴 썰들을 그저 버리기보다는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 수집용 표준앨범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며, 결핵협회에서는 국내외 수집가의 욕구에 걸맞도록 썰 엽서, Booklet(썰첩) 등 다양한 수집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썰도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수집인의 한 사람으로서 썰에 대하여 좀 더 연구하고 썰에 담긴 깊은 뜻을 이웃에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